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8, pp.169-198
<https://doi.org/10.29212/mh.2018..108.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태평양 전쟁과 중국 국민정부의 전략적 가치 변화

정형아*

1. 머리말
2. 중국의 전략적 가치 제고와 그에 따른 변화
 - 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원조 증가
 - 나. 중국의 국제지위 상승
3. 중국의 전략적 가치 하락과 그에 따른 변화
 - 가. 소련의 대일전 참가 논의
 - 나. 중국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
4. 맺음말

1. 머리말

전쟁의 세기라고 할 만큼 20세기는 여러 가지 전쟁들로 점철되어 왔고, 이들 전쟁은 세계의 여러 국가의 외교 환경과 운명을 바꾸는데 충분한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역할을 하였다. 전쟁은 자의에 의해서든지 타의에 의해서든지 한 국가에게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빼앗기도 하며 회복시키기도 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역사적으로 아시아의 대국이었던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시대의 중국은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강자의 지위를 누렸으나 아편전쟁 이후부터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함으로써 결국 아시아 패자의 지위를 일본에 내어 주었다. 그 후 의화단 사건을 거치면서 반식민지 상황에 처하게 된 중국은 더 이상 과거의 영화를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자강을 통한 회복의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열강의 강압적인 침탈과 불평등한 상황, 그리고 군벌이 할거하는 내부적인 혼란은 중국의 회생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발발한 중일전쟁은 중국에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고 중국의 재건과 국제적 위상 회복은 요원해 보였다. 그러나 중일전쟁이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초기 중국은 오로지 소련의 원조에만 의존하여 고단한 전쟁을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경제, 군사적인 원조를 얻을 수 있었고,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유지되어오던 불평등조약도 폐지할 수 있었으며, 또한 대동맹체제에서 주요한 4대 강국의 일원으로서 그 위상을 세계에 드러낼 수 있었다. 이는 전쟁기간 중국이 거둔 가장 훌륭한 외교적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실을 얻기 위해 중화민국 정부가 다각적으로 고군분투한 것이 사실이지만, 100%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라기보다는 전쟁 상황이 가져다 준 결과이며 미국이 구상하는 전후질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전략적 위치가 중시되었고, 세계 경찰로서 전후 평화유지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미국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또 대국의 지위에 올려놓았다.¹⁾ 물론 중국정부 스스로는 여러

1) 정형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국민정부의 외교활동에 대한 재고찰」, 『탐라문화』 제44호 (2013.10), 232쪽.

가지 외교적 성과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카이로에서 미국과 영국 수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장제스(蔣介石)는 매우 만족스러워 하였으며 자신들의 외교적 노력이 이른 훌륭한 성과라고 자평하였다.²⁾ 그러나 당시 외교상황의 변화는 전쟁 상황 속에서, 상당부분이 타자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분명 한계가 있었다.

필자는 본문에서, 20세기의 전쟁은 19세기 제국주의의 침탈과 내부 체제의 변화의 따른 혼란 속에 국제사회에서 과거의 권위를 상실하고 반식민지 상태에 처한 중국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 변화는 긍정적인 것도 있었고, 부정적인 것도 있었다. 또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 중국의 변화를 살펴보는 일은 국제정치사적인 측면에서나, 전쟁사적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다. 중국에게 영향을 준 20세기의 전쟁들 중에서 본고에서는 태평양 전쟁을 논의의 중심배경으로 삼아서 태평양전쟁이 중화민국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태평양 전쟁에서 중국의 전략적 가치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중국의 전략적 가치 제고와 그에 따른 변화

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원조 증가

1937년 전면적인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소련은 중국의 유일한 원조국이었으나 『소일중립조약』의 체결과 독소전쟁의 발발로 양국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고, 중국에 대한 소련의 지원은 약속한 분량을 채우지 못

2)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 卷五(上) 臺北: 中正文化基金會, 1978, 449쪽.

하고 중단되었다.³⁾ 그러나 1941년 12월 진주만공습으로 중일전쟁이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은 최대 원조국이었던 소련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었다. 독립전쟁 이후 외교정책에 있어서 고립주의를 견지해 온 미국은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세계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자처하게 되었고, 중국의 전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나라는 미국이었으나, 미국은 오랜 외교적 전통인 중립정책에 근거하여 중국의 전쟁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그러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상황은 중국이 원하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4년 동안 끌어오던 중국은 비로소 추축국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미국과 같은 진영에 서겠다는 희망을 표시하였다.⁴⁾ 1941년 12월 22일~1942년 1월 14일까지 진행된 아카디아 회의(Arcadia Conference)에서 미국과 영국은 “중국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것이 세계대전 전략의 기본방침”이라고 선언하면서 중국을 그들의 파트너로 천명하였다.⁵⁾ 그 후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자신의 파트너가 될 만한 위상을 갖게 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였다.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파트너로 ‘중국 만들기’ 작업을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하였다. 첫째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일본과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 능

3) 1937년 8월 21일 중소양국은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여 협력관계를 수립하였고, 1938년에는 차관조약을 체결하여 소련은 3차에 걸쳐서 미화 2억 5,000만 달러의 신용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독소전쟁의 발발로, 합계 약 1억 7,300만 달러를 제공하고 차관제공은 중단되었다. (정형아, 「차선의 파트너-1931~1941년 중소양국의 협력관계 연구-」, 『중국근현대사연구』 제77집(2018.3), 193쪽 참조)

4) 「蔣中正電宋子文等轉告羅斯福中國對美國對日宣戰時亦正式對日宣戰」,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同盟國聯合作戰: 重要協商(一)』, 典藏號: 002-020300-00016-003 (臺灣 國史館 所藏).

5) Robert W. Coakly, Richard M. Leighton, *Global Logistics and Strategy, 1943-1945*, Washington: Office of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68, p.835.

력을 키우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군사적인 측면이었고, 둘째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켜 4대강국의 하나로 설 수 있게 하는 국제정치적인 측면이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루즈벨트는 전시 작전 뿐 아니라 전후 세계질서에 대해서도 구상을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전시와 전후 미국의 대외정책을 수립하였다. 진주만 공습 이전부터 미국과 영국 사이에는 협조체제가 마련되어 있었다. 여기에 소련과 중국이 합세하여 추축국에 반대하는 모든 나라들 간의 협력체제인 대동맹체제(Grand Alliance)가 형성되었다. 1942년 1월 1일 추축국에 반대하는 26개 나라가 ‘국제연합국 선언’에 조인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체제에 가입한 나라의 수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총 47개국으로 늘어났다.⁶⁾ 이 중 미국의 대외정책 구상에 포함되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파트너는 영국, 소련, 그리고 중국이었다. 미국의 주도로 이들은 세계4대 강국으로 이름을 올렸고, 대동맹체제 하에서 미국의 무기대여법의 많은 혜택을 누렸다.⁷⁾

태평양전쟁 발발 전부터 미국과 영국은 ‘선유럽 후아시아’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미국 지도부는 일본보다 독일을 더 위협적인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유럽 후아시아’ 정책은 계속 유지되었으며, 그에 따라 유럽에서 이미 독일과 전쟁 중에 있던 소련의 역할도 매우 중시되었다. 루즈벨트는 1942년 5월 6일 맥아더(Douglas MacArthur)에게 보낸 서신에서, “소련군이 살상한 추축국의 병력수와 파괴한 물자는 다른 25개 국가의 전투성과 보다 많다.....미국은 가능한 많은 탄약을 소련군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독일 공군과 육군의 소련군에 대한 공격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적당한 군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할 정도로 루즈벨트는

6) 최영보, 이주천 등 공저, 『미국현대외교사: 루즈벨트에서 클린턴 시대까지』, 서울: 비봉출판사, 1998, 51쪽.

7) 최영보, 이주천 등 공저, 『미국현대외교사: 루즈벨트에서 클린턴 시대까지』, 51쪽.

소련의 군사역량을 긍정하였고 소련과의 협력을 중시하였다.⁸⁾ 루즈벨트 뿐 아니라 처칠도 소련에 대한 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942년 중반까지 영국과 미국은 4,400대의 탱크와 3,100기의 비행기를 포함하여 선박 침몰시의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고 280톤의 장비를 소련으로 수송하였다.⁹⁾

유럽에서 소련과의 협력을 중시했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일본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역할도 중요했다. 미국학자 저우탕(鄒讜, Tsou Tang)이 “미국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어떠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노력을 투입하여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실력을 운용하지 않았으나 한 나라의 외교정책과 활동을 지지하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고¹⁰⁾ 지적한 가장 적절한 사례가 바로 중국이었다. 즉 미국의 전시전략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미국이 선택한 파트너는 장제스가 영도하는 중국이었으며,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외교적 지지 뿐 아니라, 물질적 지원, 그리고 군사적 협력을 수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역량 상승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 이후 미국은 원래 중일 양국의 충돌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다. 1940년 이후 일본의 남진정책이 수립되고 이것이 미국의 동남아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미국은 일본의 팽창을 저지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의 원조에 대해서도 중립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전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미국은 1940년 3월 15일 중국의 주석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4월 20일에는 다시 이전에 체결한 적

8) Herbert Feis, *Churchill, Roosevelt, Stalin: The Way They Waged and the Peace They Sough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42.

9) 제임스 E. 도거티, 로버트 L. 팔츠그라프 지음, 이수형 옮김, 『미국외교정책사: 루즈벨트에서 레이건까지』, 서울: 한울, 1997, 55쪽.

10) 鄒讜, 『美國在中國的失敗』, 上海: 人民出版社, 1997, 32, 52쪽.

이 있는 동유(桐油)차관과 같은 형식으로 주석(朱錫)차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은 2,000만 달러의 차관을 연이자 4%로 도입할 수 있었으며, 10월 22일에는 텅스텐을 담보로 2,5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였다.¹¹⁾ 그리고 1941년 4월, 미국은 「평준기금협정(平準基金協定)」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미화 5,000만 달러로 중국의 법폐(法幣)를 구입하여 미국에 예치하고 동시에 중국에 2,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통화를 안정시키려는 조치였다.¹²⁾ 1940년을 전후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원조가 소극적 원조에서 적극적 원조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원조량은 점차 늘어갔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 미국은 증가하는 일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국내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물자지원을 통해 일본을 막아내는 것이 미국의 무장부대를 중국에 파견하여 일본과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었다.¹³⁾ 이러한 상황에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을 저지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시되었다. 1942년 후반기 미국은 독일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일본을 막아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미국 합동참모본부와 미영 참모장연합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중국 전선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때 중국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세계대전의 기본전략임을 재차 확인하였다.¹⁴⁾ 그리고 일본 본토를 폭격하는 등 아시아에서 일본에

11) 沈慶林, 『中國抗戰時期的國際援助』, 上海: 人民出版社, 2000, 48, 59쪽.

12)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一),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313쪽.

13) Herbert Feis, *The China Tangle: The American Effort in China from Pearl Harbor to the Marshall Miss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3, p.318.

14) Robert W. Coakly, Rochard M. Leighton, *Global Logistics and Strategy, 1943-1945*, pp.500-501.

대한 공격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은 중시되기 시작하였다.¹⁵⁾ 그렇기 때문에 연합군은 중국과 인도-버마전선의 총지휘부를 설치하여 장제스를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그와 동시에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1942년 1월 1일의 연합국 공동선언 제1항 ‘각국 정부는 그들의 군사, 경제적 모든 자원을 추축국에 대항하는 데에 사용할 것을 보장한다’에 근거하여,¹⁶⁾ 3월 21일 중미양국은 5억 달러의 차관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 내용 중에는 “중국에 대한 재정적, 경제적 지원은 중국이 침략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중국의 방어에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게 할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¹⁷⁾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이 일본과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목적에 따라 1942년 6월 2일 중미양국이 다시 『중미저항침략호조협정(中美抵抗侵略互助協定)』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게 방대한 양의 군수물자, 군사고문단, 경제원조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미국은 폐쇄되었던 낙타봉 항공운송선을 열어 많은 양의 전쟁 물자를 중국으로 수송하였고,¹⁸⁾ 미국 군사단을 파견하여 중미 양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중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경제협력도 끊임없이 이어 나갔다. 1945년 8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은 총 8억

15) Louis Morton, *Strategy and Command: The First Two Years*,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p.645.

16) 「宋子文電蔣中正美國國會將公布羅斯福所提五億美元中國借款案」,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對美外交: 財經援助(二)』, 典藏號: 002-020300-00031-014.(臺灣 國史館 所藏)

17) 「五億美元借款協定」, 『中外舊約章匯編』(3); 沈慶林, 『中國抗戰時期的國際援助』, 62쪽에서 재인용.

18) 낙타봉은 1942년 5월부터 1945년 9월까지 운항하였는데 이 항선은 기후가 열악하며 대체적으로 해발 3,000 이상의 산악지형으로 가장 높은 곳은 해발 6,000미터에 달하였다. 이러한 상공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미국의 항공 운송대는 629기의 운송기를 투입하여 총 65만여 톤에 달하는 각종 물자를 중국 경내로 실어 날랐다.(沈慶林, 『中國抗戰時期的國際援助』, 68쪽)

4,570만 달러의 차관을 중국에 제공하였다.¹⁹⁾ 이러한 원조 내용들은 연합국의 일원인 중국이 일본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려는 미국의 구상에 기반을 둔 것으로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아시아에서 중국이 갖는 전략적 지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나. 중국의 국제지위 상승

이러한 협력과 원조 뿐 아니라 미국은 중국을 전후 세계평화에 대한 구상에도 포함시켰다. 루즈벨트의 전후 세계평화에 대한 구상이란 국제조직을 통하여 세계평화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미국, 소련, 영국, 그리고 중국이 세계의 경찰과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세계질서를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그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었다. 루즈벨트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헐(Cordell Hull)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우리가 모든 역량을 모아 중국이 강대하고 안정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나의 믿음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오래 동안 동방대국이었던 일본이 사라지게 될 것임은 매우 명확했다. 그러므로 유일하며 중요한 동방의 강대국은 중국이 될 것이었다.(중략) 만약 동아시아 지역이 안정을 유지하려면, 어떠한 협상을 하든 그 중심에 중국이 함께 해야 했다.”²⁰⁾

태평양전쟁 당시를 회고한 헐의 판단은 동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에서의 미, 영, 소의 안정과 국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그들의 파트너로 포함시키고 중국이 안정적이고 강대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을 국제 사회에서 리더의 위치에 서게 하려는 미국의 계획은 이러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실행에 옮겨졌기 때문에, 중국은 태평양 전쟁 시기 중요한 국제회의의

19) 정형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국민정부의 외교활동에 대한 재고찰」, 223-225쪽.

20) Cordell Hull, *Memoirs of Cordell Hull*, vol.2, New York, Macmillan Co., 1948, p.1587.

와 선언에 그들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그 첫 시작은 1942년 1월 1일 워싱턴에서 26개 국가가 연합하여 추축국에 대항하기로 결의한 「반침략공동선언(Declaration by United Nation)」이었다. 이 때 중국은 처음으로 세계 4대 강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루즈벨트의 특사 커리(Lauchlin Currie)가 시찰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장제스는 중국을 세계 4대강국의 하나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해 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사의(謝意)를 전해 달라고 하였다.²¹⁾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미국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애를 쓰던 장제스는 세계 4대 강국의 하나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것이 ‘공전(空前)의 성과’라며 감격하였다.²²⁾

1943년 10월에 모스크바에서는 3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로 「보편안전선언(Declaration of the Four Nations on General Security)」, 일명 「모스크바 4개국 선언」이 선포되었다. 미, 영, 소 3개국 외무장관이 시작한 회의의 결과로 선언문을 선포할 때에는 중국을 포함한 4개국이 동참하였다. 처음 회의를 시작할 때에는 3개국 외무장관의 회의로 출발하였으나 선언문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미국 국무장관 헐이 선언문 발표에 중국을 참여시켜 4개국 선언이 되도록 하자고 제의하였다. 유럽문제 특히 제2전선 개설문제가 주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애초 이 회의는 미, 영, 소 3개국 외무장관의 회의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기회를 보아 여기에 중국을 동참시키려고 생각하였다. 모스크바에서 소련주재 중국대사 푸빙창(傅秉常)을 만난 헐은 그가 모스크바에 온 중요한 목적에는 4대 강국의 협력문제에 있고, 4강(強) 협정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미국은 소련이 여기에 가입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하였다.²³⁾ 그렇기 때문에 3개국 외무장관회의의 시작단

21) 「蔣中正接見居里談話紀錄」,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對美外交: 居里兩度來華(二)』, 典藏號: 002-020300-00034-022. (臺灣 國史館 所藏)

22)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上), 臺北: 中正文化基金會, 1978, 15쪽.

23)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三), 臺北: 中國國

계에 중국은 포함되지 못했지만 미국은 적어도 처음부터 그들이 결의한 「보편안전선언」에 중국을 포함시킬 구상을 가지고 모스크바에 왔던 것이다. 그래서 혈은 회의 진행의 상황을 수시로 푸빙창을 통하여 중국에 전달하였다.²⁴⁾ 혈은 중국이 참여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영국과 소련 외무장관을 설득하였다.²⁵⁾ 영국 외무장관 이든(Robert Anthony Eden)은 즉시 동의하였고, 소련 외교인민위원인 몰로토프(Vyacheslav Molotov)는 3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현장에 없는 중국을 포함하여 4개국 선언으로 바뀌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3개국 외무장관회의가 끝나기 전에 중국 외무장관이 도착할 수 있으면 수락하겠다고 하였다.²⁶⁾ 중국정부는 외무장관을 파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당시 모스크바에 주재하고 있던 대사 푸빙창을 전권대표로 임명하여 회의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²⁷⁾ 「모스크바 4개국 선언」에 서명할 수 있었다. 장제스는 이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가 진보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²⁸⁾ 그러나 푸빙창을 전권대사로 참여시키겠다는 것도 처음부터 미국의 준비된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선언에 중국을 참여시키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어떠한지 가늠해 볼 수 있다.

1942년 6월 이후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의 전쟁 상황에서 연합국이 승세를 타기 시작하자 미국은 동아시아의 전쟁과 전후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특히 루즈벨트의 생각에 동아시아에

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805쪽.

24) 傅錡華, 張力 校注, 『傅秉常日記(1943-1945)』,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7, 111-113쪽.

25) Cordell Hull, *Memoirs of Cordell Hull*, vol.2, pp.1281-1282; 傅錡華·張力校注, 『傅秉常日記(1943-1945)』,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7, 117쪽.

26) Cordell Hull, *Memoirs of Cordell Hull*, vol.2, p.1282.

27)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上), 421쪽.

28) 『蔣中正總統文物—事略稿本』(1943.10.27.), 典藏號: 002-060100-00181-027.

서 그의 동맹국들인 중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과 소련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함께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문제를 중재하여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미국에게 있다고 믿었다.²⁹⁾ 처칠은 1943년 5월 미국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루즈벨트가 영, 소, 중 3개국 영수와의 면담을 원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루즈벨트가 4개국 영수회담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 세계에 알려졌다.³⁰⁾ 6월 30일에 루즈벨트는 장제스에게 만남을 제의했다.³¹⁾ 물론 당초 구상과는 달리 소련은 일본과의 관계와 동아시아 변경의 안전을 고려하여 장제스와 동석하기를 꺼려했고, 장제스도 스탈린과의 회동을 꺼려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결국 4개국 영수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려는 루즈벨트의 구상은 카이로회담과 테헤란회담으로 분리되었다.³²⁾

1943년 11월 말의 카이로 회담은 강대국 일원으로서의 중국을 알리는 사건 중 최절정이었다. 장제스는 이 회담에 참가하여 미, 영 양국 수뇌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회담 전 장제스는 루즈벨트, 처칠과의 회담 의제를 구상하면서, 일본이 패망한 후 만주, 대만, 평후제도는 중국에 반환하고, 조선은 독립시키며, 전후 평화적 질서의 건립과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한다는 등의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켰다.³³⁾ 장제스는 자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질서에 대한 구상을 논의함으로써 스스로 아시아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세계 4대 강대국으로서 손색이 없음을 나타내고자 했다. 장제스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영국의 정상과 이러한 세계문제를 논의하

29) Elliot Roosevelt, *As he Saw it*, Green Press, 1946, p.129.

30)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上), 322쪽.

31) "President Roosevelt to Generalissimo Chiang"(June 30, 194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1943*, p.16.

32) Elliot Roosevelt, *As he Saw it*, Green Press, 1946, p.131.

33) 呂芳上 主編, 『張中正先生年譜長編』第七冊, 臺北: 國史館, 2015, 493쪽.

는 자리에 함께 하며 주동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 자신의 정부가 거둔 외교성과 중 ‘공전(空前)의 승리’이었다고 평가하였다.³⁴⁾

그 이듬해인 1944년의 덤바턴 오크 회의(Dumbarton oaks Conference)는 카이로·테헤란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미, 영, 소 삼국과 미, 영, 중 삼국이 각각 8월 21일~9월 28일, 9월 29일~10월 7일까지 나누어 회의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4대 강국 대표가 한 자리에 앉는 기회는 역시 성립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는 전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이 발표되었던 회의였고, 이 회의에서의 제안을 기반으로 1945년에 개최된 샌프란시스코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San Francisco Conference)에서는 국제연합헌장이 만들어졌다. 중국은 전후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제조직을 창설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동참하였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까지 오르게 되어 프랑스를 포함하여 전후 세계를 주도할 ‘빅파이브(Big Five)’의 하나로 각인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중국의 외교적 행보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적 성과와 국제지위의 상승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잠재력과 지리적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하면서 내세운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가장 적절한 명분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국가가 바로 중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³⁵⁾ 이처럼 태평양전쟁을 통하여 자신의 국제적 지위와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기도 했지만, 상당부분이 태평양 전쟁발발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리고 미국이라는 타자에 의해 주어졌기 때문에,³⁶⁾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였다.

34)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上), 449쪽.

35) 鄒讜, 『美國在中國的失敗』, 38-39쪽.

36) 정형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국민정부의 외교활동에 대한 재고찰」, 231쪽.

3. 중국의 전략적 가치 하락과 그에 따른 변화

가. 소련의 대일전 참전 논의

외형적인 결과로 보았을 때, 전술한 중국의 국제적인 행보는 태평양 전쟁 시기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되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중국의 대국지위에 대해서 일부 학자는 이를 명목상으로 대국지위를 부여 받은 것이라고 하거나 혹은 한계가 있는 대국지위의 부여였다고 지적한다.³⁷⁾ 이러한 이견은 대부분 소련의 대일전 참전 대가와 관련이 있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조건이 명문화된 것은 1945년 2월 4일~11일까지 개최된 알타회담의 결과물인 「알타협정」이다. 협정의 내용은 회담 종결당시에는 비밀에 붙여졌고, 미국정부가 이를 중국에 통보한 시점은 회의가 끝나고 4개월 후인 6월 16일이었다. 미국은 협정내용을 중국에 통보하면서 알타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련이 대일전 참전 시 요구하는 바를 소련에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루즈벨트를 이은 트루먼 대통령도 이에 동의한다고 전하였다. 소련이 요구한 바는 다음과 같았다.³⁸⁾

첫째, 외몽고의 현 상황인 ‘몽고인민공화국’을 유지한다. 둘째, 제정러시아가 누렸으나 1904년 일본의 교활한 공격에 의해 상실한 것을 회복한다. 즉, ① 쿠릴열도 남부와 그 부근 도서는 소련에 반환한다. ② 다렌 상업 항구는 국제화되어야 하며 소련은 그 항구에 대한 우세한 권익을 보장받아야 하고 뒤순을 조치하여

37) 이주천, 『루즈벨트의 친소정책, 1933-1945』, 서울: 신서원, 1998; 趙志輝, 「試論二戰期間中國的大國地位問題」, 『淮北煤師院學報』(社會科學版)1995年第3期; 王眞, 「現實大國與虛幻大國-抗戰時期中國大國地位的二律背反」, 『抗日戰爭研究』2001年第2期; 隋淑英, 「太平洋戰爭與中國的大國地位」, 『齊魯學刊』2006年第5期; 李懷順, 「論德黑蘭會議對中國國際地位的影響」, 『天水師範學院學報』第31卷第1期(2011.01) 등.

38) 『蔣中正總統文物一事略稿本』(1945.6.15), 典藏號: 002-060100-00201-015.

해군항의 권리를 회복한다. ③ 중동철로와 남만주철로는 중소양국이 공동 경영하는 회사가 관리하며 소련의 우세한 이익을 보장한다. 동시에 중국은 만주의 주권을 보유한다. 셋째, 사할린은 소련에게 반환한다. 넷째, 소련은 중국 국민정부와 우호동맹조약의 체결을 준비하고 중국에 군사적으로 협조하여 중국을 일본세력 하에서 해방시킨다.

이상의 소련이 요구한 참전조건은 대부분 이전에 제정러시아가 중국에서 누렸던 특권이었으나 러일전쟁으로 인해 일본에 넘겨야 했던 것인데, 이에 관련된 사항은 알타에서 처음 논의된 것이 아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이 중국을 아시아의 파트너로 결정하고 대국 지위를 부여하면서 중국에 기대했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중국이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전시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1944년 4월을 전후로 하여 그 해 말까지 일본은 방대한 공세로 중국의 광대한 영토를 점령해 나갔고 그 결과 뤼양(洛陽), 창사(長沙), 구이린(桂林) 등 중요지역 146곳이 함락되었다. 이로써 미국의 공군력이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군기지를 상실하게 되었고, 중국이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그 후에도 중국군이 계속해서 일본군에게 격파되자 미국은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군의 전투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장제스와 스틸웰(Joseph W. Stilwell)의 갈등도 더해져서 미국정부는 중국에 대한 정책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4년 가을 미국 군부도 일본공략 방법에 대해 다시 구상하였고 결국 중국 동남해안을 일본 공략기지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³⁹⁾

중국의 연속적인 패배는 중국의 전투능력에 대한 불신 뿐 아니라 장제스 정부에 대한 인식도 바꾸기 시작했는데 장제스 정부에게 중국공산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하라는 압박도 그 한 측면이었다.⁴⁰⁾ 심지어 미

39) 鄒謙, 『美國在中國的失敗』, 64-65쪽.

40) 루즈벨트는 대일전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라도 국민당정부와 중국공산당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서 헐리(Patrick J. Hurley)를 특사

국 인사들 중에서는 미국의 영향으로 중국 내부를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지적하며 반드시 장제스의 영도 하에서 통일을 이룰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⁴¹⁾ 미국의 이러한 인식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구상해 온 아시아에서 파트너로 중국에 대한 중요성이 퇴색되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련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즉, 중국이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소련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 소련이 대일전 참전에 대한 대가로 제시하게 되는 조건이 루즈벨트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가 1944년의 중국의 전투결과로서도 상당부분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련의 전략적 가치가 중시될수록 전후세계에서 소련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미국 내 반소주의자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고, 루즈벨트도 어느 정도 여기에 동의하였다.⁴²⁾ 그러나 루즈벨트는 아직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전선에서,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소련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소련 측에서 보면 소련의 참전 대가에 대한 구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가 상실한 만주에서의 권익을 회복하는 것은 소련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오랫동안 중시해 온 국가 이익을 되찾는 것일 뿐 아니라 러일전쟁에서의 패전으로 인한 국민적 수치심을 회복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즉,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그 대가는 단지 미국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로 파견하여 충칭(重慶)과 연안(延安)사이를 오가면 연합정부구성에 관해 중재하게 하였다.(정형아, 「알타회담 전후를 통해 본 중미관계」, (2009.11), 97쪽)

41) “Memorandum by the Chief of the Division of Chinese Affairs(Vincent) to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5, vol.7, The Far East, China*, p.38.

42) Elenor Roosevelt, *This I Remember*,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49, p.253.

소련 스스로의 오랜 숙원이자 전략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⁴³⁾

그러면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누가 먼저 제의한 것일까?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주천은 1943년 1월 스탈린이 헐리(Patrick J. Hurley) 장군에게 독일이 패배한 후 소련은 일본을 분쇄하는데 참전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할 국무장관은 그 해 10월 3개국 외무장관회의를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스탈린에게 그 약속을 재확인시켰다고 기록하였고,⁴⁴⁾ 미국학자 웨스태드(Odd Arne Westad)는 테헤란 회담 때부터 스탈린은 루즈벨트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⁴⁵⁾ 대만학자 리롱츄(李榮秋)도 미소양국의 대일전 참전에 대한 언급이 시작된 것이 테헤란회담이라고 하며, 스탈린이 테헤란 회담에서 루즈벨트에게 ‘독일이 항복한 후 3개월 이내에 대일전 참전’을 언급하였다고 말했다.⁴⁶⁾ 대략적으로 1943년 한 해를 거치면서 미소 양국은 모두 유럽전선에서 승세가 보이기 시작하자 동아시아에서의 상황과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각기 다른 관점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전쟁과 국가이익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해는 각기 달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이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 점은 소련의 참전과 조속한 전쟁의 종결이었다. 호전되지 않는 아시아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소련을 대일전에 참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참전조건이었고, 참전조건의 승인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던 중국이 핵심적 위치에 있었다.

43) 沈志華, 「蘇聯出兵:中國東北的目標和結果」, 『歷史研究』1994年第5期, 89-91쪽.

44) 이주천, 『루즈벨트의 친소정책, 1933-1945』, 247쪽.

45) Odd Arne Westad, “Cold War and Revolution: Soviet-American Rivalry and the Origins of the Chinese Civil War, 1944-1946”, Ph. D,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1990, p.14.

46) 李榮秋, 『珍珠港事變到雅爾達協定期間的美國對華關係』, 臺北: 私立東吳大學中國學術著作獎助委員會, 1978, 303쪽.

나. 중국이 지불해야 하는 대가

카이로에서 장제스와 루즈벨트가 다룬 중요한 의제 중, 중요한 부분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관한 중국의 협력이었다. 미국은 유럽 뿐 아니라 아시아의 전쟁에서도 소련의 역할을 중시했던 만큼, 소련과 협력해야 하는 중국의 역할과 태도도 매우 중시하였다. 그에 따라 대일전에서 연합국간의 상호 협력 문제와 일본의 영토 문제에 관한 기본 방침을 논의하였다. 그 중 주목해 볼 수 있는 장제스와 루즈벨트가 합의한 중국에 관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본이 침탈한 중국의 영토는 모두 중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② 일본이 중국에서 소유한 산업들은 모두 중국정부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③ 중국은 다롄(大連)항을 자유항으로 삼는다, ④ 소련은 중국동북 4성의 주권을 존중하고 중국공산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은 중국공산당을 참여시킨 민주통일정부를 수립한다.⁴⁷⁾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11월 30일 테헤란회담에서 처칠은 스탈린의 의견을 물었다. 스탈린은 기본적으로 카이로에서의 합의에 동의하며, 만주, 대만, 평후 등을 중국에 반환하는 것은 맞지만, 장제스의 대일전에 대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스가 일본과의 전쟁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다는 스탈린의 의견에 처칠과 루즈벨트도 동의했다.⁴⁸⁾ 테헤란 회담을 통해 미, 영, 소 3개국 영수는 장제스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결국 소련군의 참전은 확실시되었다.

카이로와 테헤란에서의 회담이후 루즈벨트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는 소련에게 지불해야 할 참전대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소련이 원하는 참전의 대가는 중국의 동이가 필요한 것이었다. 부동향을 원하는 스탈린의 열망을 알았기 때문에 카이로에서 루즈벨트는 전쟁이 끝나면 일

47) 梁敬鎔, 『開羅會議』, 臺北: 商務印書館, 1973, 157-158쪽.

48) 李榮秋, 『珍珠港事變到雅爾達協定期間的美國對華關係』, 303쪽.

본이 점령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고 대신 다렌을 국제자유항으로 만들어 국제무역이 자유롭게 하자는 제의를 하였다. 장제스는 미국과의 협작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루즈벨트의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소련이 함께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소련이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확실히 존중해 주면 소련이 다렌 항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⁴⁹⁾ 스탈린은 카이로와 테헤란에서 일부 논의되었던 다렌을 국제자유항으로 사용하는 것을 뛰어넘어, 과거 제정러시아시기에 러시아가 만주에서 누렸던 특수한 권익을 회복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소련의 참전대가는 중국의 국가이익과 충돌되는 민감한 문제였다.⁵⁰⁾ 스탈린도 이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장제스와의 회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소련주재 미국대사 해리먼(William A. Harriman)을 통해 장제스와의 만남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해리먼은 헐리 장군을 통해 이를 장제스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중국주재 소련대사관 측에서도 장제스의 아들 장징궈(蔣經國)을 통해 같은 뜻을 전달하였으나, 장제스는 이를 거절하였다.⁵¹⁾ 1945년 알타회담에서는 장제스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은 소련에게 다렌을 조차할 수 있게 한다는 밀약을 맺었다.⁵²⁾ 당시 중국은 스틸웰 사건과 국공양당의 연합정부 구성문제 등으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장제스에게 만나자고 하는 소련의 제의를 중미관계를 더욱 이간시키려는 것으로 판단하였고⁵³⁾ 대일전 참전

49) "Roosevelt-Chiang Dinner Meeting, November 23, 1943, 8 P.M., Roosevelt's Villa",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1943*, p.324

50) William A. Harriman and Elie Abel,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New York: Random House, 1975, p.371.

51)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629쪽.

52) "Roosevelt-Stalin Meeting, February 8, 1945, 3:30 P.M., Lovadia Palac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Conferences at Malta and Yalta, 1945*, p.769.

53)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下), 631쪽.

대가문제와는 연관시키지는 않았다.

결국 장제스와 스탈린의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그로부터 1개월 후인 1944년 12월 스탈린은 해리먼에게 그들이 원하는 참전 조건을 전달하였다.⁵⁴⁾ 첫째, 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를 소련에 반환할 것, 둘째, 뤼순과 다렌 그리고 그 주변지역을 소련이 조차할 것, 셋째, 중동철로와 남만주철로를 중소양국이 공동 경영할 것, 넷째, 외몽고의 현 상황을 승인할 것과 대신 중국의 만주지역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알타에서의 참전대가가 확정되었다. 다만 알타비밀협정에서는 해리먼과 스탈린이 논의하지 않은 ‘소련의 우세한 권익을 보장한다’는 표현이 더해져 있었다. 해리먼은 이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루즈벨트에게 물었다. 루즈벨트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단지 소련인이 그 지역에서 누리는 이익을 영국이나 미국보다 조금 더 많도록 한 것뿐이며, 이것은 문자상의 문제일 뿐이고 이것으로 인해 스탈린과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소련이 바라는 조건 중의 일부인 다렌 항과 뤼순기지에 대한 이야기를 장제스와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장제스가 소련의 참전조건을 받아들일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⁵⁵⁾

루즈벨트는 일본과의 전쟁을 조속히 종결하는 데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루즈벨트는 소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존의 상황처럼 중국과 대일전을 끌어간다면 일본을 패배시키기는 매우 어렵고 그 대가는 매우 비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스탈린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⁵⁶⁾ 루즈벨트의 이러한 판단은 일본이라는 적에 대한 과대평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본과 맞서야 하는

54) William A. Harriman and Elie Abel,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pp.397-400.

55) William A. Harriman and Elie Abel,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p.399.

56) William A. Harriman and Elie Abel,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pp.414-415.

전략적 파트너로서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이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와 상대적으로 소련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제스는 대동맹체제의 일원이면서도 이념적 차원에서 소련과의 동맹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우려하였고, 루즈벨트에 게도 이러한 뜻을 전달하였다.⁵⁷⁾ 그러나 루즈벨트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제스가 일본과의 전쟁보다는 이념적 문제에 더 신경을 쓴다고 보았다. 이같이 스탈린을 경계하는 장제스의 태도는 루즈벨트가 처칠보다 스탈린의 역할을 더 높이 평가했다는 점에서도⁵⁸⁾ 루즈벨트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오히려 소련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더 높일 뿐이었다.

알타에서 소련의 참전과 대가가 미소양국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루즈벨트와 그의 참모들은 매우 만족하였다. 카이로선언 초안을 작성했던 홉킨스(Harry L. Hopkins)는 “우리는 내심 이것은 우리가 줄곧 바라던 새 시대의 여명이라고 믿었다…….대통령과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그들(소련)과 공존할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득히 먼 미래까지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회고하였다.⁵⁹⁾

소련의 대일전 참전 대가는 결국 중국이 지불해야 했다. 그 대가는 1945년 8월 14일 중소양국이 모스크바에서 체결한 「중소우호동맹조약」으로 확정되었다. 중국이 그것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알타에서 스탈린과 결정한 「소련의 대일전 참전 조건에 관한 협정」의 내용을 비밀에 부쳐오다가 6월 16일에 가서야 중국정부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였다. 물론 알타회담이 끝난 이후 장제스는 여러

57) 『蔣中正總統文物—事略稿本』(1943.11.23), 典藏號: 002-060100-00182-023.

58) George N. Crocker, *Roosevelt's Road to Russia*, Chicago: Henry Regnery Company, 1959, p.247.

59) Robert E. Sherwood, *Roosevelt and Hopkins: An Intimate History*, N.Y.: Harper & Row, 1950, p.870.

가지 경로를 통하여 알타비밀협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알고 있었지만,⁶⁰⁾ 미국의 태도에 대해 적지 않게 실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알타협정에 근거하여 진행된 모스크바 중소담판에 대해서 미국은 자국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언급되기 전까지는 전혀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국정부의 기대와 어긋나는 것이었다.

모스크바 중소담판은 7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담판의 진행은 매우 순조롭지 않은 가운데, 8월 9일 히로시마 원폭투하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련은 즉각 만주로 출병하였고, 12일 만주지역으로 소련군이 진입하였다. 이것은 중소담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중국은 소련의 대부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⁶¹⁾ 대신 소련은 중국정부가 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을 승인했다. 그것은 알타에서 루즈벨트가 스탈린에게 요구했던 것이기도 하다. 즉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장제스의 영도적 지위를 인정해 주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스탈린은 중국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통일에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⁶²⁾ 「중소우호동맹조약」에서도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장제스의 국민정부만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⁶³⁾ 중국은 과연 이 답변 하나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중소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던 7월 말, 장제스는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였다.

나는 알타회의에 대해서 인정한 적도 없고 참가한 적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데 어찌 집행할 의무가 있겠는가? 그(트루먼)는 진실로 중국을 그들의 속국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는 중심도 없고 방침도

60) 정형아, 「알타회담 전후를 통해 본 중미관계」, 99-108쪽.

61) 정형아, 「1945년 중소교섭과 미국의 개입」, 232-233쪽.

62) “Roosevelt-Stalin Meeting, February 8, 1945, 3:30 P.M., Lovadia Palac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Conferences at Malta and Yalta, 1945*, p.771.

63)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二), 655-656쪽.

없으며 예의도 없는 매우 위험한 것이므로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⁶⁴⁾

이처럼 장제스는 자신의 친미성향에 대해 회의하면서도 결국 소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미소양국이 알타에서 결정한 것을 뛰어넘는 요구들을 허락하였다. 이는 국공갈등이라는 장제스 정부가 처한 내부적 문제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연 소련이 장제스의 국민정부만 지지하겠다는 답변하나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태평양전쟁 시기 세계 4대 강국의 하나로 이름을 올린 중국이 국제정치무대에서 과연 미, 영, 소 강대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4. 맺음말

본문의 통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우선 ‘태평양 전쟁은 중국에게 어떠한 기회가 되었는가?’이다.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언급해 본다면, 단연 전쟁을 지속하고 국가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물적 인적 지원이 주어졌고, 국제적으로도 세계 4대 강대국의 하나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은 확실히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제공한 기회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제기되는 질문은 ‘왜 중국이 소련의 참전대가를 지불해야 했는가?’이다. 중국은 1937년부터 8년간 일본과 지난한 전쟁을 치러오고 있었고 물적 인적 손실도 상당히 컸다. 전쟁의 최대의 피해자는 중국이었으나, 중국은 전쟁의 종결을 위하여, 그리고 전후의 안정된 정권유지를 위해 대가를 치러야 했다. 물론 이 대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중국이 해야 하는 것이었고, 엄밀히 말하면 중국이 그 대가를 거부해 버릴 수도 있는

64) 『蔣中正總統文物—事略稿本』(1945.7.29), 典藏號: 002-060100-00202-029.

것이였다. 그러나 중국은 대가 지불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 해답은 태평양 전쟁이후 미국이 판단한 중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태평양 전쟁이 중국에게 제공한 긍정적인 측면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이 일본과의 전쟁을 지속하여 아시아 전선을 충분히 막아준다면, ‘선유럽 후아시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미국은 유럽에서 히틀러의 독일을 격퇴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가장 적절한 명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을 전시, 전후 파트너로 적합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필요한 지원과 더불어 국제적 지위 상승이라는 보너스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전쟁의 효과적 지속’이라는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좋지 않은 결과를 제출하였다. 즉, 1944년의 일련의 전투에서 일본에게 계속 패하자 그에 따라 장제스의 통치역량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을 통일시키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반드시 장제스의 영도 하에서 통일을 이룰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같이 중화민국 정부에 대한 전략적 가치 하락하자 상대적으로 소련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었다. 물론 소련의 대일전 참전은 중국의 실패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루즈벨트가 소련의 참전을 더욱 절실히 요구한 것에는 중국의 실패라는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소련의 참전 대가 또한 중국이 지불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이 뒤따랐다.

두 번째 해답은 전후 소련의 역할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소련의 출병은 알타밀약에 근거한 1945년 8월 중소양국의 담판이 거의 교착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졌다. 만주로 출병한 소련군의 존재는 장제스에게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 세계 각국 지도자들 중에서 이념적인 문제에 가장 집착한 사람은 아마도 장제스일 것

이다. 물론 미국과 영국은 자유 민주주의국가였고 소련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이들 삼국의 지도자들은 이념을 뛰어넘어 서로 동맹 체제를 이루어냈다. 사실 미국 내에서도 루즈벨트의 친소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었고, 루즈벨트도 스탈린 체제를 히틀러의 독재정치 이상으로 엄격하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소련은 적어도 군사적 침략을 통해 세계정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의 전체주의적 형태가 독일의 전체주의보다는 덜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전후 세계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소련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⁶⁵⁾ 그렇기 때문에 장제스가 루즈벨트에게 끊임없이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의 위험성을 제시했지만 루즈벨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최후에 소련이 만주로 출병한 후에 장제스가 보장받아야 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는 소련이 장제스의 국민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국민정부만을 지원하고 협력하며, 중국공산당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장제스는 스탈린에게 이 한 가지 약속을 받았고, 다른 여러 가지 국가이익은 내어주었다.

결과적으로 중화민국은 태평양 전쟁 발발이라는 전쟁 상황으로 인해 국가적 이익도 얻었지만, 또한 소련의 만주 출병이라는 전쟁 종결 직전의 상황으로 인해 자국의 이익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8. 7. 4, 심사수정일 : 2018. 8. 14, 게재확정일 : 2018. 8. 16)

주제어 : 태평양전쟁, 중화민국, 강대국지위, 전략적 가치, 알타밀약, 소련의 만주출병

65) 이주천, 『루즈벨트의 친소정책, 1933-1945』, 217쪽.

<참 고 문 헌>

1차 사료 및 자료집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同盟國聯合作戰: 重要協商(一)』(臺灣 國史館 所藏)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對美外交: 財經援助(二)』(臺灣 國史館 所藏)

『蔣中正總統文物: 革命文獻-對美外交: 居里兩度來華(二)』, (臺灣 國史館 所藏)

『蔣中正總統文物-事略稿本』(臺灣 國史館 所藏)

秦孝儀, 『總統蔣公大事長編初稿』卷五(上) 臺北: 中正文化基金會, 1978

秦孝儀,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一),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呂芳上 主編, 『張中正先生年譜長編』第七冊, 臺北: 國史館, 2015

傅錡華, 張力 校注, 『傅秉常日記(1943-1945)』,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7

Elliot Roosevelt, As he Saw it, Green Press, 1946

Cordell Hull, Memoirs of Cordell Hull, vol.2, New York, Macmillan Co., 194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194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Far East, China, 1945

William A. Harriman and Elie Abel, Special Envoy to Churchill and Stalin, 1941-1946, New York: Random House, 1975

논문

정형아, 「알타회담 전후를 통해 본 중미관계」, 『역사와 실학』제40집(2009.11)

정형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국민정부의 외교활동에 대한 재고찰」, 『탐라문화』제44호(2013.10)

정형아, 「차선의 파트너-1931~1941년 중소양국의 협력관계 연구-」, 『중국근현대사연구』제77집(2018.3)

沈志華, 「蘇聯出兵: 中國東北的目標和結果」, 『歷史研究』1994年第5期

趙志輝, 「試論二戰期間中國的大國地位問題」, 『淮北煤師院學報』(社會科學版)1995年第3期

王眞, 「現實大國與虛幻大國—抗戰時期中國大國地位的二律背反」, 『抗日戰爭研究』

2001年第2期

隋淑英, 「太平洋戰爭與中國的大國地位」, 『齊魯學刊』2006年第5期

李懷順, 「論德黑蘭會議對中國國際地位的影響」, 『天水師範學院學報』第31卷第1期

(2011.01)

Odd Arne Westad, “Cold War and Revolution: Soviet–American Rivalry and the Origins of the Chinese Civil War, 1944–1946”, Ph. D,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1990

연구서

제임스 E. 도거티, 로버트 L. 팔츠그라프 지음, 이수형 옮김, 『미국외교정책사: 루즈벨트에서 레이건까지』, 서울: 한울, 1997

최영보, 이주천 등 공저, 『미국현대외교사: 루즈벨트에서 클린턴 시대까지』, 서울: 비봉출판사, 1998

이주천, 『루즈벨트의 친소정책, 1933–1945』, 서울: 신서원, 1998

梁敬鎔, 『開羅會議』,臺北: 商務印書館, 1973

李榮秋, 『珍珠港事變到雅爾達協定期間的美國對華關係』,臺北: 私立東吳大學中國學術著作獎助委員會, 1978

鄒讜, 『美國在中國的失敗』, 上海: 人民出版社, 1997

沈慶林, 『中國抗戰時期的國際援助』, 上海: 人民出版社, 2000

Robert E. Sherwood, Roosevelt and Hopkins: An Intimate History, N.Y.; Harper & Row, 1950

Herbert Feis, The China Tangle: The American Effort in China from Pearl Harbor to the Marshall Miss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3

George N. Crocker, Roosevelt’s Road to Russia, Chicago: Henry Regnery Company, 1959

Louis Morton, Strategy and Command: The First Two Years, Washingto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Herbert Feis, Churchill, Roosevelt, Stalin: The Way They Waged and the Peace They Sough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Robert W. Coakly, Richard M. Leighton, Global Logistics and Strategy, 1943–1945, Washington: Office of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68

<Abstract>

The Pacific War and Changes in the Strategic Valu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Jung, Hyung-ah

The 20th century was marred by a series of wars, being called “the century of wars.” These wars played a sufficient role in changing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ir diplomatic environments and national fate. In particular, wars take away and restore a county’s international position whether voluntarily or forcibly. One of the most notable cases can be found in China which was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history of Asia. In a chaotic state following the plunder of imperialism and changes in its internal system in the 19th century, China lost its past author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ecame a semi-colonial state. Wars in the 20th century also gave China chances to change itself. This study focused on this point, and, especially, on the Pacific War, among the wars that affected China in the 20th century, as the central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The study aimed to discuss what the Pacific War gave the Republic of China, and, in particular, what kind of changes there were in international relations.

‘What kind of opportunities did the Pacific War give to China?’ First, from its positive aspects, physical and human resources were definitely given to China to continue the war and stabilize the country. China was also able to put its name on the list of the world’s top 4 pow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since the cost of the Soviet-Japanese War had to be paid by China,

the status of China as one of the World's top 4 powers began to be doubted.

As a result, changes in the strategic values of China that the United States expected from China opened a way for China to become a powerful nation, but they also resulted in the distorted phenomenon in which China, as an ally of the Soviet Union, had to sacrifice the national interest. Consequentially, the Republic of China benefited from the state of war upon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but, at the same time, it had to give up its national interest due to the situation right before the end of the war - the dispatch of Soviet troops to Manchuria.

Key Words : The Pacific War, the Republic of China, the position of a powerful nation, Yalta Agreements, the dispatch of Soviet troops to Manchuria